



정교회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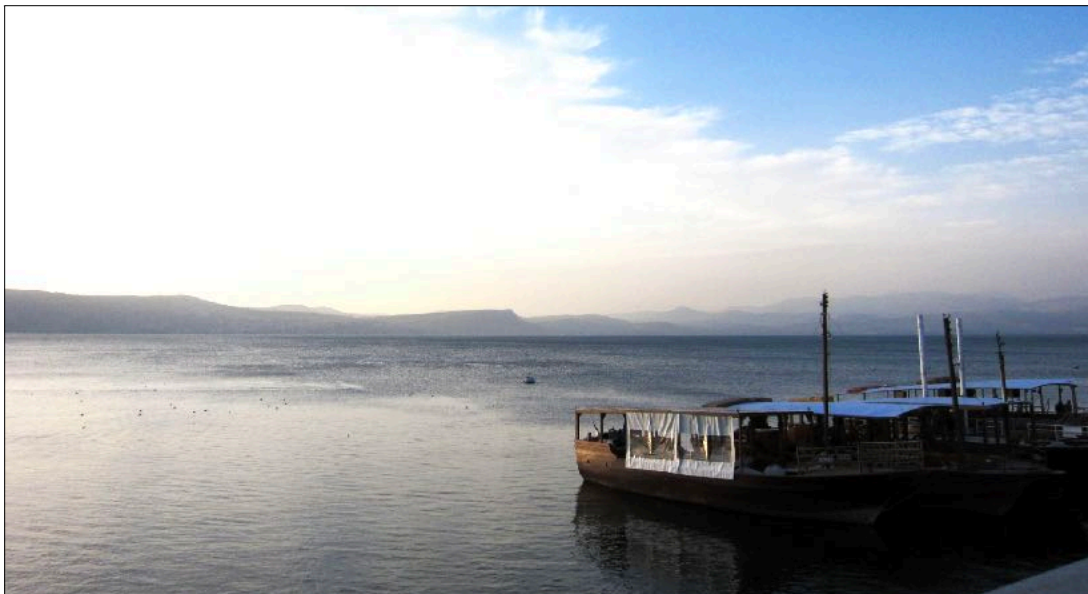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제 32 주일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
3대 교부
(제7조 | 조과 복음 10)



영성의 샘터

정교회를 경외함

“**나** 선 정교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 서방 교회와 같은 조직과 문화는 없지만, 마치 기적처럼 수많은 시련과 투쟁을 통해 생존해 온 교회! 역설과 대조로 가득한 교회! 너무도 전통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나 고대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너무도 예전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교회!

때로는 먼지에 쌓여있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값비싼 진주를 고귀하게 간직해 온 교회! 무엇보다도 어둠과 침묵 속에서, 순결과 가난과 금욕과 겸손과 용서의 영원한 가치를 보존해 온 교회! 자주 행동에는 무지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줄 알았던 교회! 이것이 바로 정교회입니다.”

‘예수’의 머리글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p.82
- 주일 입당송 ----- p.14
- 세 분 대주교 축일 찬양송 - p.162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 p.164
- 사도경 : 히브리 13,7~16 -- p.162
- 복음경 : 마태오 5,14~19 -- p.163
- 영성체성혈송 ----- p.16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2년 사목 지침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로마 12,10)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염병의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정교회 제18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사람들의 인내와 끈기를 시험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공동체는 큰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시작된 후부터 과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을 강렬한 방법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이 모든 나라에 제공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백신과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수록 바이러스는 선진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망치면서 퍼져나가고 변이될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선이라는 이 위대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2022년의 대교구 의회 주제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로마서 12,10)로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

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크나큰 애정과 자발적인 사랑을 표현하듯이,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2고린토 9,7),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선의 유일한 모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자선의 두 번 다시 없을 유일한 모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올해도 거룩한 12일간의 축일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큰 자비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무척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육화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타락한’ 우리를 발견하셨고,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신성한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성탄절 만과 스티히라를 통해 찬양하듯,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예시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 우리도 자애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 우리 자신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는 구유가 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1고린토 10,24)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성인들은 자애로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 구세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디도 3,4), 하느님의 친구들, 즉, 성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느님의 자선 활동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는 “성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이익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더욱 빛났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은 자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수평선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애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에게 있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특성은 없습니다.” 성인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성인인 아토스 성산의 파이시오스 성인은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내 마음을 칼로 조각내어서 그 조각들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애로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성인들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자애를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일례로, 가난한 국가들에서 의약품과 백신을 처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지상 어디에서든, 우리의 사랑과 자선이 우리 형제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이타적인 자선과 베품은 우리 마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자선에 대한 유명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선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천상의 재물들로 부자가 되기 위해, 자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자애를 본받음으로써,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푸는 자애의 측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어떤 면에서도 하느님의 속성들을 그 정도 깊이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자선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사제’로 만드는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제’는 성사적인 사제직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제직을 의미합니다. 성인의 설명은 다음의 권고들로 보충됩니다. “당신의 집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금고를 자선함으로 만드십시오. 거룩한 성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선을 베푸십시오. 자선은 당신에게 한 종류의 사제직을 부여합니다.”

(다음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2월 1일 (화)
설날 맞이 성찬예배 및 추도식
서울 성당은 오전 9:30 시작
- 쫄리바 준비하세요.
- 수요일 금식은 설 연휴로
해제합니다.
- * 2월 2일 (수)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 * 2월 5일 (토)
성 아가티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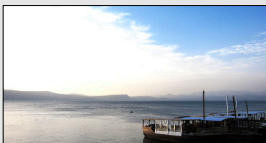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즈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표지 사진 설명



갈릴래아 호수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다. 둘레가 약 52km 정도 되는 담수호로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물의 1/3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수원이다.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에서 흘러들어 온 뒤 요르단강을 통해 사해로 빠져나간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자라던 나자렛이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 지역이었으며, 많은 기적이 이루어진 곳이다. 사도들의 대부분도 이곳 갈릴래아 지방 출신이었다. 신구약 성서에는 긴네렛, 티베리아, 겐네사렛 등 여러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 제공 : 마태오 이경섭 교우)

소식

제18회 대교구 의회

2022년도 대교구 의회가 지난 주일(23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를 비롯해 사제단, 미국의 페리 보제, 운영위원들, 90여 명의 신자가 함께 했습니다. 대주교께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자선뿐만 아니라 영적 자선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사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면 참고) 2부는 성직자와 성당 운영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대교구 및 각 성당의 2021년 영적 사업 및 재정 결산, 2022년 영적사업 계획 및 재정 예산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협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해에도 한국 정교회의 발전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이 성실하게 실행되길 기도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마리아 스베로볼루 봉사자께서 지난 1월 17일 안식하셨습니다. 고인은 1975년부터 시작된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한국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 현지에서 선교비 모금과 성기물, 교회 용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일을 맡아 헌신하셨습니다. 1977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20여 년 동안 두 나라를 오가며 한국 선교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개설, 각 단체 교사 교육, 교재 제작, 수련회 개최, 청장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선교 사역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스 귀국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한국 선교 업무를 계속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국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신자들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교회는 고인이 안식한 후 40일째 되는 2월 25일 다음 날에 맞는 영혼 토요일의 추도식에서 특별히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한국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